

CVA 환자의 일반적 특성 및 CVA와 관계되는 원인들의 역학적 조사

불교한방병원 물리치료과
김 응 각

General Characteristics of CVA and Epidemic Survey of the Cause Related CVA

Kim, Woong-Gak, P.T.
Dept. of Physical Therapy, Bulgyo Oriental Hospital

〈Abstract〉

This observation was made on 163 cases of CVA that were confirmed through survey. They were treated in the Bulgyo Oriental Hospital in Taegu from February to March 1998. The results was as follows,

1. The ratio of male to female was 1:1.36 in whole groups.
2. Onset time was occurred 37.4% at 06:00-12:00, 26.4% at 12:00-18:00, and 20.9% at 00:00-06:00.
3. Of 157 cases of cerebrovascular accidents cerebral infarction (included cerebral thrombosis & cerebral embolism) was presented in 47.7%, cerebral hemorrhage in 38.2%, subarachnoid hemorrhage in 5.1%, and others in 8.9%.
4. The most ordinary preceding disease was hypertension.
5. The family history was appeared as 12.9% of the mother, 9.7% of the father.(This observation was made on 155 cases)
6. The body weight of CVA patients was appeared 37.4% in 51-60kg, 30.7% in 61-70kg, 17.8% in below 50kg, and 9.8% in 71-80kg, 4.3% in above 80kg.
7. Of 161 cases, 46.6% did not exercise.
8. Of 163 cases, 65.6% of them did not drink alcohol.
9. Of 162 cases, 63% did not smoke cigarettes.
10. The food taste (food habit) of stroke patients was that they comprised a fancy as 38.0% of salty food, 33.8% of fresh food, and 24.7% of hot food, 3.5% of sweet food.(This observation was made on 142 cases)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 We must restrain salty food and control positively hypertension and in terms of CVA prevention.

I. 서론

현대는 산업사회화와 문명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고, 노령인구의 증가와 성인병 발생이 늘어나며, 그에 따라 뇌졸중의 발생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Richard, 1992; Kenneth, 1987; 金斗熙 외, 1992).

전세계 주요 4대 死因으로 감염성 질환, 뇌졸중, 심장질환, 악성종양을 들 수 있는데(한상태 외, 1996; Lawrence, 1982), 우리나라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의 발표에 의하면 1989년도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는 25,781명으로 악성신생물에 이어 제2위로 나타난다(양재모 외, 1984; 경제기획원, 1990).

뇌졸중 또는 뇌혈관장애(CVA: Cerebral Vascular of Accident)는 뇌혈관의 原發性 병리과정에 의해서 급격한 局所神經症狀를 보이는 경우를 총칭하며(李尙龍, 1990), 韓醫學적으로는 中風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具本泓 외, 1987; 金定濟, 1974), 주로 火와 痰飲이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며, 일반적으로 火란 정신신경계의 병리적 현상을 의미하고, 痰飲이란 津液이 변질된 비생리적인 물질을 말한다(金永錫, 1980; 李容旭, 1989).

뇌혈관질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운동, 감각, 언어, 정신등의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 원인이 뇌혈관 장애에 의한 것이든, 외상이나 감염에 의한 것이든, 중추신경계의 손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오정희, 1986; 이재학, 1988), 이는 많은 후유증들을 초래하여 개인이나 가정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 제한을 가져오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크므로 의료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뇌혈관장애 환자는 기능회복의 정도에 따라 장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발병 초기의 생명유지와 응급의 단계에서는 양방의료기관을 이용한 수술 및 처치를 받고, 이후의 재활치료를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요즘에는 洋, 韓方 모두 CVA 환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하여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CVA의 발병 원인중 예방이 가능한 因子들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는 미약한 실정이라, 오늘날 국민 보건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방병원에 來院 치료중인 CVA 환자를

대상으로 뇌졸중의 일반적특성과 CVA의 유발인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뇌졸중 환자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1998년 2월부터 1998년 3월까지 대구광역시 불교한방병원에 내원 치료하였던 환자중 163명의 CVA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조사방법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환자와의 직접적인 면접에 의해 조사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SAS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주요 특성들 간에 백분율(%)과 빈도, 평균을 구하여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변수간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χ^2 -test를 하였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인원(명) 163	백분율(%) 100.0
성별		
남	69	42.3
여	94	57.7
나이		
39세 이하	11	6.7
40-49세	19	11.7
50-59세	41	25.2
60-69세	60	36.8
70세 이상	32	19.6
결혼관계	FM=2	
기혼	121	74.7
미혼	9	5.6
기타	32	19.8
교육정도	FM=4	
전문대 이상	17	10.7
고졸	27	17.0
중졸	32	20.1
초등졸	66	41.5
무학	17	10.7
재산상태	FM=19	
5천만원 이하	37	25.7
5천만원-1억원	48	33.3
1억원-2억원	31	21.6
2억원-3억원	11	7.6
3억원 이상	17	11.8

註: FM=Frequency Missing (미기재; 무응답)

표 2. 발병시각

구분	0-6시	6-12시	12-18시	18-24시	계
	20.9(34)	37.4(61)	26.4(43)	15.3(25)	100.0(163)
성별					
남	11.0(18)	15.3(25)	10.4(17)	5.5(9)	42.3(69)
여	9.8(16)	22.1(36)	16.0(26)	9.8(16)	57.7(94)
	x ² =2.161		df=3	sig=0.540	
나이					
39세 이하	1.2(2)	1.8(3)	1.8(3)	1.8(3)	6.8(11)
40-49세	0.6(1)	4.9(8)	2.5(4)	3.7(6)	11.7(19)
50-59세	5.5(9)	6.8(11)	9.2(15)	3.7(6)	25.2(41)
60-69세	7.4(12)	4.7(24)	9.8(16)	4.9(8)	36.8(60)
70세 이상	6.1(10)	9.2(15)	3.1(5)	1.2(2)	19.7(32)
	x ² =15.883		df=12	sig=0.197	
결혼					
기혼	15.4(25)	26.5(43)	21.0(34)	11.7(19)	74.7(121)
미혼	-	1.9(3)	1.9(3)	1.9(3)	5.6(9)
기타	5.6(9)	8.6(14)	3.7(6)	1.9(3)	19.7(32)
	x ² =6.802		df=6	sig=0.340	FM=1
교육 정도					
전문대 이상	1.3(2)	3.8(6)	5.7(9)	-	10.7(17)
고졸	3.1(5)	5.7(9)	4.4(7)	3.8(6)	17.0(27)
중졸	3.8(6)	8.8(14)	5.0(8)	2.5(4)	20.1(32)
초등졸	10.7(17)	15.1(24)	9.4(15)	6.3(10)	41.5(66)
무학	1.9(3)	5.0(8)	1.3(2)	2.5(4)	10.7(17)
	x ² =13.354		df=12	sig = 0.344	FM = 4
재산 상태					
5천만원 이하	5.6(8)	7.6(11)	6.9(10)	5.6(8)	25.7(37)
5천만원-1억원	8.3(12)	11.8(17)	5.6(8)	7.6(11)	33.3(48)
1억원-2억원	3.5(5)	9.7(14)	6.9(10)	1.4(2)	21.5(31)
2억원-3억원	-	3.5(5)	2.8(4)	1.4(2)	7.6(11)
3억원 이상	2.1(3)	4.9(7)	4.2(6)	0.7(1)	11.8(17)
	x ² =12.445		df=12	sig=0.411	FM=13

註 : FM=Frequency Missing

Ⅲ. 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163명중 남자가 42.3%(69명), 여자가 57.7%(94명)로 남녀의 비는 1 : 1.36이었으며, 나이별 분포는 60대에서 36.8%, 50대에서 25.2%,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19.6%를 차지하였다. 결혼관계에서는 기혼이 74.7%, 미혼이 5.6%였으며, 기타(별거, 이혼, 배우자사별 포함)가 19.8%로 나왔다. 교육정도는 초등학교졸이 41.5%, 중졸이 20.1%, 전문대 이상과 무학이 10.7%로 비슷하였다. 재산상태를 보면 5천만원-1억원이 33.3%를, 5천만원 이하가 25.7%, 1억원-2억원이 21.6%를 나타내었다(표 1).

2. 발병시각

CVA의 발병시각별 빈도를 살펴보면 6-12시가 37.4%(61명)로 1위였고 12-18시가 26.4%(43명)로 2위, 0-6시는 20.9%(34명)로 3위였으며 18-24시는 15.3%(25명)로 4위였다.

각 특성별 차이는 성별에서 남자는 6-12시 15.3%, 0-6시 11.0%의 순이었고 여자는 6-12시 22.1%, 12-18시 16.0%의 순이었다. 나이별 특성을 보면 30대에서는 발병시각별 빈도가 비슷하였고 40대에서는 6-12시에서 4.9%로 제일 높았으며, 50대에서는 12-18시에서 9.2%로 다른 군보다 높았다. 결혼은 기혼에서 6-12시 26.5%, 12-18시 21.0%, 0-6시 15.4%의 순이었고 미혼은 비슷하였으며 기

타 독신자군에서는 6-12시 8.6%, 0-6시 5.6%, 12-18시 3.7%의 순이었다. 교육정도에서는 0-6시에서는 초등졸 10.7%, 중졸 3.8%의 순이었고, 6-12시에서는 중졸8.8%, 전문대이상 5.7%의 순이었으며 18-24시에서는 초등졸 9.4% 전문대이상 5.7%의 순이었고 18-24시에서는 초등졸 6.3% 고졸 3.8%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상태별 특성은 0-6시와 6-12시에서는 5천만원-1억원이 8.3%와 11.8%로 가장 높았고 12-18시는 5천만원이하와 1억원-2억원이 6.9%로 높았다(표 2).

3. 병류별 발생빈도

진단에 따른 빈도를 보면 조사인원 157명 중에 뇌경색

이 43.7%(69명)로 1위, 뇌출혈 38.2%(60명)2위, 지주막 하출혈 5.1%(8명)로 3위, 혈전증 3.2%(5명)로 4위, 색전증과 뇌종양이 각각0.6%(1명)씩 이었고 기타가 8.3%(13명)였다.

성별간 특성은 뇌경색은 남녀 모두 21.0%와 22.9%로 비슷하게 나왔고 유의성은 없었다.

나이별로 보면 뇌출혈과 뇌경색은 60대에서 가장 높았고, 결혼관계에서도 기혼에서 뇌출혈 28.2% 뇌경색 32.1%로 다른 군보다 높게 나왔다.

교육정도에서 보면 뇌출혈은 초등학교 졸(14.2%), 고졸(9.7%), 무학(7.1%)의 순이었고,

뇌경색은 초등학교졸(15.5%), 중졸(12.3%), 전문대 이

표 3. 병류별 발생빈도

구 분	뇌출혈 38.2(60)	지주막 하출혈 5.1(8)	뇌경색 43.9(69)	혈전증 3.2(5)	색전증 0.6(1)	뇌종양 0.6(1)	기타 8.3(13)	계 100.0(157)
성별								
남	17.8	1.3	21.0	0.6	0.6	-	2.6	44.0(69)
여	20.4	3.8	22.9	2.6	-	0.6	5.7	56.0(88)
	$\chi^2 = 5.907$ df = 6 sig = 0.434							
나이								
39세이하	3.8	-	1.3	0.6	-	-	0.6	6.4(10)
40-49세	8.3	-	1.9	-	-	-	1.3	11.5(18)
50-59세	7.6	1.9	11.5	0.6	-	-	2.6	24.2(38)
60-69세	14.0	1.9	16.6	1.3	0.6	-	3.2	37.6(59)
70세이상	4.5	1.3	12.7	0.6	-	0.6	0.6	20.4(32)
	$\chi^2 = 27.546$ df = 24 sig = 0.280							
결혼								
기혼	28.2	3.9	32.1	1.9	0.6	-	7.1	73.7(115)
미혼	3.2	-	1.9	0.6	-	-	-	5.8(9)
기타	6.4	1.3	10.3	0.6	-	0.6	1.3	20.5(32)
	$\chi^2 = 9.400$ df = 12 sig = 0.668 FM = 1							
교육정도								
전문대 이상	1.9	0.7	7.1	-	-	-	1.3	11.0(17)
고졸	9.7	-	5.2	0.7	-	-	1.9	17.4(27)
중졸	5.8	-	12.3	0.7	-	-	1.3	20.0(31)
초등졸	14.2	4.5	15.5	1.9	0.7	0.7	3.2	40.7(63)
무학	7.1	-	3.2	-	-	-	0.7	11.0(17)
	$\chi^2 = 27.780$ df = 24 sig = 0.269 FM = 2							
재산상태								
(동산+부동산) 5천만원 이하	10.7	2.9	6.4	1.4	-	0.7	2.1	24.3(34)
5천만원-1억원	14.3	1.4	15.0	0.7	0.7	-	2.1	34.3(48)
1억원-2억원	5.0	1.4	12.9	-	-	-	2.1	21.4(30)
2억원-3억원	2.9	-	4.3	0.7	-	-	-	7.9(11)
3억원 이상	6.4	-	5.0	-	-	-	0.7	12.1(17)
	$\chi^2 = 21.957$ df = 24 sig = 0.582 FM = 17							

註 : FM = Frequency Missing

상(7.1%)의 순이었다. 지주막하출혈은 초등졸에서 4.5%로 다른 군 보다 높았다.

재산상태별로 보면 뇌출혈에서는 5천만원-1억원(14.3%)이, 지주막하출혈은 5천만원 이하(2.9%)가, 뇌경색에서는 5천만원-1억원(15.0%)에서 가장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표 3).

표 4. 선행질환 유무

구분	있다	없다	계
	백분율(인원)	백분율(인원)	
남	18.1(29)	25.0(40)	43.1(69)
여	31.2(50)	25.6(41)	56.9(91)
계	49.4(79)	25.6(81)	100.0(160)
$x^2 = 5.907$ $df = 6$ $sig = 0.434$			

표 5. 선행질환

구분	고혈압 48.6(34)	당뇨병 22.9(16)	심장질환 17.1(12)	기타 11.4(8)	계 100.0(70)
성별					
남	21.4(15)	8.6(6)	4.3(3)	4.3(3)	38.6(27)
여	27.1(19)	14.3(10)	12.9(9)	7.1(5)	61.4(43)
$x^2 = 1.386$ $df = 3$ $sig = 0.709$					
나이					
39세이하	-	-	2.9(2)	1.4(1)	4.3(3)
40-49세	5.7(4)	-	1.4(1)	-	7.1(5)
50-59세	15.7(11)	7.1(5)	1.4(1)	4.3(3)	28.6(20)
60-69세	18.6(13)	14.3(10)	8.6(6)	4.3(3)	45.7(32)
70세 이상	8.6(6)	1.4(1)	2.9(2)	1.4(1)	14.3(10)
$x^2 = 15.229$ $df = 12$ $sig = 0.229$					
결혼					
기혼	37.7(26)	17.4(12)	14.5(10)	10.1(7)	79.7(55)
미혼	-	-	-	-	-
기타	10.1(7)	5.8(4)	2.9(2)	1.5(1)	20.3(14)
$x^2 = 0.634$ $df = 3$ $sig = 0.889$ $FM = 1$					
교육정도					
전문대 이상	5.8(4)	2.9(2)	-	2.9(2)	11.6(8)
고졸	2.9(2)	1.5(1)	1.5(1)	1.5(1)	7.3(5)
중졸	13.0(9)	2.9(2)	5.8(4)	-	21.7(15)
초등졸	18.8(13)	11.6(8)	7.3(5)	5.8(4)	43.5(30)
무학	8.7(6)	2.9(2)	2.9(2)	1.5(1)	15.9(11)
$x^2 = 7.235$ $df = 12$ $sig = 0.842$ $FM = 1$					
재산상태					
(동산+부동산)					
5천만원 이하	11.5(7)	6.6(4)	3.3(2)	3.3(2)	24.6(15)
5천만원-1억원	18.0(11)	6.6(4)	4.9(3)	3.3(2)	32.8(20)
1억원-2억원	11.5(7)	6.6(4)	3.3(2)	3.3(2)	24.6(15)
2억원-3억원	1.6(1)	-	1.6(1)	-	3.3(2)
3억원 이상	9.8(6)	1.6(1)	1.6(1)	1.6(1)	14.8(9)
$x^2 = 4.016$ $df = 12$ $sig = 0.983$ $FM = 9$					

註 : FM=Frequency Missing

4. 선행질환

선행질환에 대하여 조사한 바 응답자 160명 중 선행질환이 있다가 49.4%(79명) 없다가 50.6%(81명)이었다(표 4).

선행질환이 있는 대상자중 무응답자를 제외한 70명을 조사한 결과 고혈압이 48.6%(34명)로 가장 높았고, 당뇨병 22.9%(16명), 심장질환 7.1% 순이었다. 특성별로 살펴보면 고혈압은 남자의 21.4% 보다 여자가 27.1%로 더 높았고 당뇨병도 여자가 14.3%로 남자의 8.6% 보다 높았다. 나이에서는 고혈압은 60대(18.6%), 50대(15.7%), 70대이상(8.6%)의 순이었다. 당뇨병은 60대(14.3%)가 다른 군보다 높았다. 결혼관계에서는 고혈압이 기혼에서 37.7%, 기타 독신자군에서 10.1%였으며, 당뇨병과 심장

질환도 17.4%와 5.8%, 14.5%와 2.9%로 기혼이 높았으며, 특이한 점은 미혼에서는 한명도 없었다. 교육정도에서는 고협압이 초등졸 18.8%, 중졸 13.0%, 무학 8.7% 순이었고, 당뇨병에서는 초등졸이 11.6%로 다른 군 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심장질환은 초등졸 7.3%, 중졸 5.8% 등의 순이었다(표 5).

5. 가족력

가족력에 대한 빈도를 보면 155명중 없음이 65.8%로 102명이었고, 있음이 34.2%(53명)이었는데, 있다 중에서는 어머니가 12.9%(20명), 아버지 9.7%(15명), 형제자매가 7.7%(12명) 그리고 조부와 조모는 각각 1.9%(3명)의 순이었다. 성별은 남자에서는 아버지와 형제자매가 각각 4.5%(7명)로 높았으며, 여자는 어머니가 9.0%로 다른 군

보다 높았다. 나이는 50대에서 어머니가 4.5%로 1위, 60대는 아버지가 4.5%로 1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결혼관계는 기혼과 기타 독신자군 모두 어머니가 8.4%, 3.9%로 높게 나왔다. 교육정도에서는 전문대이상과 고졸은 아버지가 2.0%와 2.7%로 높았으며 중졸과 초등졸은 어머니가 2.7%, 4.0%로 각각 높았다. 재산상태별 특성은 5천만원이하에서는 형제자매가 4.4%로, 5천만원-1억원과 3억원이상에서는 어머니가 3.7%와 2.9%로, 그리고 1억원-2억원은 아버지가 4.4%로 다른 군 보다 높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표 6).

6. 체 중

체중별 빈도를 알아보면 51-60kg이 37.4%(61명)로 1위, 61-70kg이 30.7%(50명)으로 2위, 50kg이하가 17.

표 6. 가족력

구 분	아버지	어머니	조부	조모	형제(자매)	없음	계
	9.7(15)	12.9(20)	1.9(3)	1.9(3)	7.7(12)	65.8(102)	100.0(155)
성별							
남	4.5(7)	3.9(6)	-	0.7(1)	4.5(7)	29.7(46)	43.2(67)
여	5.2(8)	9.0(14)	1.9(3)	1.3(2)	3.2(5)	36.1(56)	56.8(88)
	$\chi^2 = 5.163$		df = 5		sig = 0.396		
나이							
39세 이하	-	0.7(1)	0.7(3)	-	-	5.2(8)	6.5(10)
40-49세	-	1.9(3)	-	1.3(2)	1.9(3)	6.5(10)	11.6(18)
50-59세	3.9(6)	4.5(7)	-	-	1.3(2)	14.2(22)	23.9(37)
60-69세	4.5(7)	3.9(6)	1.3(2)	0.7(1)	3.2(5)	25.2(39)	38.7(60)
70세 이상	1.3(2)	1.9(3)	-	-	1.3(2)	14.9(23)	19.4(30)
	$\chi^2 = 26.036$		df = 20		sig = 0.165		
결혼							
기혼	7.8(12)	8.4(13)	-	2.0(3)	5.8(9)	51.3(79)	75.3(116)
미혼	-	0.7(1)	0.7(1)	-	-	3.9(6)	5.2(8)
기타	2.0(3)	3.9(6)	1.3(2)	-	2.0(3)	10.4(16)	19.5(30)
	$\chi^2 = 15.207$		df = 10		sig = 0.125		FM = 1
교육정도							
전문대 이상	2.0(3)	1.3(2)	-	-	-	8.0(12)	11.3(17)
고졸	2.7(4)	2.0(3)	0.7(1)	0.7(1)	-	11.3(17)	17.2(26)
중졸	-	2.7(4)	0.7(1)	0.7(1)	2.0(3)	14.6(22)	20.5(31)
초등졸	5.3(8)	4.0(6)	-	-	4.0(6)	26.5(40)	39.7(60)
무학	-	2.0(3)	0.7(1)	0.7(1)	1.3(2)	6.6(10)	11.3(17)
	$\chi^2 = 19.723$		df = 20		sig = 0.475		FM = 4
재산상태							
(동산+부동산)							
5천만원 이하	1.5(2)	2.9(4)	-	0.7(1)	4.4(6)	16.1(22)	25.6(35)
5천만원-1억원	2.9(4)	3.7(5)	-	-	2.9(4)	24.1(33)	33.6(46)
1억원-2억원	4.4(6)	2.9(4)	0.7(1)	-	-	13.1(18)	21.2(29)
2억원-3억원	-	-	-	0.7(1)	1.5(2)	5.1(7)	7.3(10)
3억원 이상	1.5(2)	2.9(4)	0.7(1)	-	-	7.3(10)	12.4(17)
	$\chi^2 = 28.054$		df = 20		sig = 0.108		FM = 18

8%(29명)로 3위, 71-80kg이 9.8%(16명)로 4위, 80kg이상이 4.3%(7명)로 5위의 순이었다(표 7). 성별로 보면 남자는 60kg대에서 16.0%로 높게 나왔고, 여자는 50kg대가 25.2%로 제일 높게 나와 남녀간에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p=0.000$) 나이별 특성은 39세 이하에서 50kg이하가 3.7%로 높았고, 40대에서는 61-70kg가 5.5%로, 50대에서는 51-60kg이 9.8%로, 60대에서는 51-60kg이 16.0%, 70세이상은 61-70kg에서 8.0%로 다른 군보다 높게 나왔으며 유의성이 있었다. ($p<0.01$) 결혼관계를 보면 51-60kg에서 기혼이 25.9%, 미혼이 2.5%, 기타 독신자군에서 8.6%로 다른 군보다 높게 나왔다. 교육정도별 차이는 전문대 이상이 61-70kg에서 5.0%로 제일 높았으며, 고

졸은 71-80kg(5.0%)에서, 중졸은 61-70kg(8.8%)에서, 초등학교 무학은 51-60kg에서 각각 19.5%와 5.0%로 다른 군보다 높게 나왔다. ($p<0.01$) 재산상태로는 51-60kg군에서 다른 군보다 높았으며, 3억원이상에서만 61-70kg에서 7.6%로 높게 나왔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0.05$).

7. 운 동

운동에 관한 빈도는 조사대상자 161명중 하지 않는다가 46.6%(75명)로 제일 높았고, 한달에 몇번이 28.0%(45명), 1주에 3회이하 13.7%(22명), 1주에 4회이상 11.8%(19명)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하지 않는다

표 7. 체 중

구 분	50kg이하	51-60kg	61-70kg	71-80kg	80kg이상	계
	17.8(29)	37.4(61)	30.7(50)	9.8(16)	4.3(7)	100.0(163)
성별						
남	1.2(2)	12.3(20)	16.0(26)	9.2(15)	3.7(6)	42.3(69)
여	16.6(27)	25.2(41)	14.7(24)	0.6(1)	0.6(1)	57.7(94)
	$\chi^2 = 41.832$		df = 4	p = 0.000		
나이						
39세 이하	3.7(6)	1.8(3)	-	0.6(1)	0.6(1)	6.8(11)
40-49세	-	3.1(5)	5.5(9)	3.1(5)	-	11.7(19)
50-59세	4.3(7)	9.8(16)	5.5(9)	3.1(5)	2.5(4)	25.2(41)
60-69세	6.1(10)	16.0(26)	11.7(19)	2.5(4)	0.6(1)	36.8(60)
70세 이상	3.7(6)	6.8(11)	8.0(13)	0.6(1)	0.6(1)	19.6(32)
	$\chi^2 = 33.467$		df = 16	p < 0.01		
결혼						
기혼	13.0(21)	25.9(42)	24.1(39)	9.3(15)	2.5(4)	74.7(121)
미혼	1.9(3)	2.5(4)	0.6(1)	-	0.6(1)	5.6(9)
기타	3.1(5)	8.6(14)	6.2(10)	0.6(1)	1.2(2)	19.8(32)
	$\chi^2 = 7.891$		df = 8	sig = 0.444	FM = 1	
교육정도						
전문대 이상	0.6(1)	3.1(5)	5.0(8)	1.3(2)	0.6(1)	10.7(17)
고졸	2.5(4)	3.8(6)	3.8(6)	5.0(8)	1.9(3)	17.0(27)
중졸	1.9(3)	5.7(9)	8.8(14)	3.1(5)	0.6(1)	20.1(32)
초졸	9.4(15)	19.5(31)	11.3(18)	0.6(1)	0.6(1)	41.5(66)
무학	3.8(6)	5.0(8)	1.3(2)	-	0.6(1)	10.7(17)
	$\chi^2 = 39.501$		df = 16	p < 0.01	FM = 4	
재산상태						
5천만원 이하	8.3(12)	9.7(14)	4.2(6)	2.8(4)	0.7(1)	25.7(37)
5천만-1억원	4.9(7)	16.7(24)	7.6(11)	3.5(5)	0.7(1)	33.3(48)
1억원-2억원	1.4(2)	8.3(12)	7.6(11)	2.8(4)	1.4(2)	21.5(31)
2억원-3억원	1.4(2)	2.8(4)	1.4(2)	1.4(2)	0.7(1)	7.6(11)
3억원 이상	1.4(2)	2.1(3)	7.6(11)	-	0.7(1)	11.8(17)
	$\chi^2 = 26.628$		df = 16	p < 0.05	FM = 19	

註 : FM = Frequency Missing

(14.3%)와 한달에 몇번 한다(13.0%)는 비슷하였는데, 여자에서는 하지 않는다(32.3%)가 한달에 몇번한다 (14.9%)보다 월등히 높았다($P<0.05$). 나이별 차이는 1주에 4회 이상한다는 60대에서 6.2%로 제일 높았고, 1주에 3회이하는 50대에서 (6.2%), 한달에 몇번은 60대에서 (11.2%)가장 높게 나왔다.

결혼관계에서 보면, 하지 않는다를 빼고 한달에 몇번 한다가 기혼이 19.4%,미혼이 3.1%, 기타가 5.6%로 높았다. 교육정도별 차이는 전문대이상에서는, 하지 않는다 (1.9%)보다 1주에 3회이하(4.5%), 1주에 4회이상(2.6%)이 더욱 높게 나왔다.($P<0.01$) 재산상태에 대해 알아보면 2억원-3억원대에서 하지않는다(0.7%)보다 한달에 몇번 (4.2%)등으로 더욱 높게 나왔다(표 8).

8. 음 주

음주에 관한 발생빈도를 보면 조사대상자 163명중 안한다가 65.6%(107명)으로 가장 높았고, 2-3일에 한번 한다가 11.0%(18명)으로 2위,한달에 1-2회는 9.8%(16명)로 3위, 매일한다가 8.6%(14명)으로 4위, 1주일에 한번은 4.9%(8명)로 가장 낮게 나왔다. 성별간 특성을 보면 매일한다는 남자 8.0% 여자 0.6%였고, 2-3일에 한번은 남자 9.8% 여자 1.2%가 나왔으며, 한 달에 1-2회는 남자 6.8%, 여자 3.1%가 나왔다. 그리고 안한다는 남자가 13.5%인 반면에 여자는 52.2%가 나왔다($p<0.01$). 나이별 차이는 매일한다는 60대에서(4.3%) 가장 높았고, 2-3일에 한번씩 한다는 60대에서 5.5%로 다른 군보다 높았다. 1주일에 한 번은 30세 이하를 뺀 나머지 그룹에서 1.2%로 같게

표 8. 운 동

구 분	1주에 4회 이상 11.8(19)	1주에 3회 이하 13.7(22)	한달에 몇번 28.0(45)	하지 않는다 46.6(75)	계 100.0(161)
성별					
남	5.5(9)	9.3(15)	13.0(21)	14.3(23)	42.2(68)
여	6.2(10)	4.4(7)	14.9(24)	32.3(52)	57.8(93)
	$\chi^2 = 10.752$		$df = 3$	$P < 0.05$	
나이					
39세 이하	-	-	3.1(5)	3.1(5)	6.2(10)
40-49세	1.9(3)	2.5(4)	1.9(3)	5.6(9)	11.8(19)
50-59세	2.5(4)	6.2(10)	6.2(10)	10.6(17)	25.5(41)
60-69세	6.2(10)	2.5(4)	11.2(18)	17.4(28)	37.3(60)
70세이상	1.2(2)	2.5(4)	5.6(9)	9.9(16)	19.3(31)
	$\chi^2 = 14.738$		$df = 12$	$sig = 0.256$	
결혼					
기혼	10.0(16)	11.3(18)	19.4(31)	33.8(54)	74.4(119)
미혼	-	-	3.1(5)	2.5(4)	5.6(9)
기타	1.9(3)	2.5(4)	5.6(9)	10.0(16)	20.0(32)
	$\chi^2 = 5.635$		$df = 6$	$sig = 0.465$	$FM = 1$
교육정도					
전문대 이상	2.6(4)	4.5(7)	1.9(3)	1.9(3)	10.8(17)
고졸	3.2(5)	2.6(4)	6.4(10)	5.1(8)	17.2(27)
중졸	3.2(5)	3.2(5)	6.4(10)	7.0(11)	19.8(31)
초등졸	1.3(2)	3.2(5)	11.5(18)	25.5(40)	41.4(65)
무학	0.6(1)	0.6(1)	1.9(3)	7.6(12)	10.8(17)
	$\chi^2 = 33.440$		$df = 12$	$P < 0.01$	$FM = 4$
재산상태 (동산+부동산)					
5천만원 이하	2.1(3)	0.7(1)	7.0(10)	15.5(22)	25.4(36)
5천만원-1억원	3.5(5)	4.9(7)	8.5(12)	16.2(23)	33.1(47)
1억원-2억원	2.1(3)	4.2(6)	7.8(11)	7.8(11)	21.8(31)
2억원-3억원	1.4(2)	1.4(2)	4.2(6)	0.7(1)	7.8(11)
3억원 이상	3.5(5)	2.1(3)	1.4(2)	4.9(7)	12.0(17)
	$\chi^2 = 20.241$		$df = 12$	$sig = 0.063$	$FM = 19$

註 : FM=Frequency Missing

나왔다. 안하다는 60代(22.1%) 50代(19.6%) 70세 이상(11.0%)의 순이었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결혼관계를 보면 매일한다는 기혼에서 6.2%, 기타 독신자 군에서 1.9%, 미혼이 0.6%가 나왔으며, 안한다 에서는 기혼이 48.2%, 기타가 13.0%, 미혼이 4.3%였고, 유의성은 없었다. 교육정도별 차이를 보면 매일한다는 초등학교졸업에서 5.0%로 가장 높았고, 다른 조건들에서도 제일 높게 나왔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재산정도를 보면 매일한다는 5천만원-1억원에서 4.9%로 1위였고, 2-3일에 한번은 5천만원이하에서 5.6%로 1위를 나타내었다(표 9).

9. 흡연 (1日 기준)

흡연의 빈도를 보면 조사대상자 162명중에 안한다가 63.0%(102명)로 제일 많았고, 하루에 0.5-1갑이 16.0%(26명), 1-2갑이 15.4%(25명), 반갑이하가 4.9(8명), 2갑 이상이 0.6%(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간 차이는 1-2갑이 남자가 14.2%로 여자의 1.2%로 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반갑이하에서는 남녀 모두 2.5%가 나왔다. 그리고 안한다에서는 여자가 58.0%였으며, 남자는 42.0%를 보였다. 유의수준은 $p < 0.01$ 이었다. 나이별 차이를 보면 2갑이상이 60代에서 1명(0.6%)이 있었고, 1-2갑에서는 60代가 7.4%로 1위 70세이상이 3.7%로 2위를 나타냈으

표 9. 음주 (소주 2홉 1병 기준)

구 분	매일한다 8.6(14)	2-3일에 1회 11.0(18)	1주일에 1회 4.9(8)	한달에 1-2회 9.8(16)	안한다 65.6(107)	계 100.0(163)
성별						
남	8.0(13)	9.8(16)	4.3(7)	6.8(11)	13.5(22)	42.3(69)
여	0.6(1)	1.2(2)	0.6(1)	3.1(5)	52.5(85)	57.7(94)
$\chi^2 = 62.658$ $df = 4$ $p < 0.01$						
나이						
39세 이하	-	-	-	1.2(2)	5.5(9)	6.8(11)
40-49세	1.2(2)	1.8(3)	1.2(2)	-	7.4(12)	11.7(19)
50-59세	0.6(1)	1.2(2)	1.2(2)	2.5(4)	19.6(32)	25.2(41)
60-69세	4.3(7)	5.5(9)	1.2(2)	3.7(6)	22.1(36)	36.8(60)
70세 이상	2.5(4)	2.5(4)	1.2(2)	2.5(4)	11.0(18)	19.6(32)
$\chi^2 = 15.198$ $df = 16$ $sig = 0.510$						
결혼						
기혼	6.2(10)	9.9(16)	2.5(4)	8.0(13)	48.2(78)	74.7(121)
미혼	0.6(1)	-	-	0.6(1)	4.3(7)	5.6(9)
기타	1.9(3)	1.2(2)	2.5(4)	1.2(2)	13.0(21)	19.8(32)
$\chi^2 = 7.832$ $df = 8$ $sig = 0.450$ $FM = 1$						
교육정도						
전문대 이상	1.9(3)	1.3(2)	-	1.9(3)	5.7(9)	10.7(17)
고졸	-	1.9(3)	0.6(1)	1.3(2)	13.2(21)	17.0(27)
중졸	1.9(3)	1.3(2)	1.9(3)	1.9(3)	13.2(21)	20.1(32)
초등졸	5.0(8)	6.3(10)	1.9(3)	3.1(5)	25.2(40)	41.5(66)
무학	-	0.6(1)	0.6(1)	1.9(3)	7.6(12)	10.7(17)
$\chi^2 = 14.350$ $df = 16$ $sig = 0.573$ $FM = 4$						
재산정도						
(동산+부동산)						
5천만원 이하	1.4(2)	5.6(8)	1.4(2)	1.4(2)	16.0(23)	25.7(37)
5천만원-1억원	4.9(7)	2.8(4)	2.1(3)	2.8(4)	20.8(30)	33.3(48)
1억원-2억원	2.8(4)	2.1(3)	0.7(1)	3.5(5)	12.5(18)	21.5(31)
2억원-3억원	-	0.7(1)	0.7(1)	0.7(1)	5.6(8)	7.6(11)
3억원 이상	-	-	0.7(1)	1.4(2)	9.7(14)	11.8(17)
$\chi^2 = 15.222$ $df = 16$ $sig = 0.508$ $FM = 19$						

註 : FM = Frequency Missing (미기재 : 무응답)

표 10. 흡연 (1일 기준)

구분	2갑 이상 0.6(1)	1-2갑 15.4(25)	0.5-1갑 16.0(26)	반갑 이하 4.9(8)	안한다 63.0(102)	계 100.0(162)
성별						
남	0.6(1)	14.2(23)	13.6(22)	2.5(4)	11.1(18)	42.0(68)
여	-	1.2(2)	2.5(4)	2.5(4)	51.9(84)	58.0(94)
$\chi^2 = 71.476$ $df = 4$ $p < 0.01$						
나이						
39세 이하	-	0.6(1)	-	0.6(1)	5.6(9)	6.8(11)
40-49세	-	1.9(3)	2.5(4)	0.6(1)	6.8(11)	11.7(19)
50-59세	-	1.9(3)	3.7(6)	1.2(2)	18.5(30)	25.3(41)
60-69세	0.6(1)	7.4(12)	6.8(11)	1.9(3)	19.8(32)	36.4(59)
70세 이상	-	3.7(6)	3.1(5)	0.6(1)	12.4(20)	19.8(32)
$\chi^2 = 9.992$ $df = 16$ $sig = 0.867$						
결혼						
기혼	0.6(1)	14.3(23)	11.8(19)	3.1(5)	44.7(72)	74.5(12)
미혼	-	-	0.6(1)	0.6(1)	4.4(7)	5.6(9)
기타	-	1.2(2)	3.7(6)	1.2(2)	13.7(22)	19.9(32)
$\chi^2 = 6.416$ $df = 8$ $sig = 0.601$ $FM = 1$						
교육정도						
전문대 이상	-	3.2(5)	1.9(3)	-	5.7(9)	10.8(17)
고졸	-	3.2(5)	1.9(3)	1.3(2)	10.8(17)	17.1(27)
중졸	0.6(1)	1.9(3)	3.2(5)	1.9(3)	12.7(20)	20.3(32)
초등졸	-	7.6(12)	7.6(12)	1.3(2)	24.7(39)	41.1(65)
무학	-	-	1.9(3)	0.6(1)	8.2(13)	10.7(17)
$\chi^2 = 14.236$ $df = 16$ $sig = 0.581$ $FM = 4$						
재산정도						
(동산+부동산) 5천만원 이하	-	5.6(8)	2.8(4)	2.1(3)	15.3(22)	25.7(37)
5천만원-1억원	-	4.2(6)	6.3(9)	2.4(2)	21.5(31)	33.3(48)
1억원-2억원	-	5.6(8)	4.2(6)	1.4(2)	10.4(15)	21.5(31)
2억원-3억원	-	0.7(1)	0.7(1)	-	6.3(9)	7.6(11)
3억원 이상	-	0.7(1)	2.1(3)	-	9.0(13)	11.8(17)
$\chi^2 = 10.227$ $df = 12$ $sig = 0.596$ $FM = 18$						

註 : FM=Frequency Missing (미기재 : 무응답)

며, 안한다는 60대 19.8%, 50대 18.5%, 70세이상이 12.4%의 순으로 나왔다.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결혼관계를 보면 0.5-1갑에서는 기혼이 11.8%로 기타의 3.7%와 미혼의 0.6%보다 높게 나왔으며, 안한다에서는 기혼이 44.7%, 기타 독신자 중에서 13.7%, 미혼이 4.4%를 보였는데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교육정도별 특성을 보면 1-2갑에서는 초등학교졸이 7.6%로 가장 높았으며, 0.5-1갑에서는 초등학교졸이 7.6%로 1위였고, 중졸이 3.2%로 2위를 나타냈다. 그리고 안한다에서는 초등학교졸 24.7% 중졸 12.7% 고졸 10.8%의 순이었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재산정도에서는 5천만원이하에서는 안한다 15.3%와 1-2갑 5.6%의 순이었고, 3억이상은 안한다 (9.0%)가 0.5-1갑 (2.1%)

보다 월등히 높았다(표 10).

10. 식습관 (좋아하는 음식 맛)

식습관에 관한 빈도는 조사대상자 142명중 전음식이 38.0%(54명)로 1위, 싱거운 음식은 33.8%(48명)로 2위, 매운음식은 24.7%(35명)로 3위였으며, 단음식은 3.5%로 4위를 나타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전음식(18.3%)과 매운음식 (14.1%)을 좋아하였고, 여자는 싱거운 음식(24.7%), 전음식(19.7%)순으로 좋아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다.($P < 0.05$) 나이별 상관관계를 보면 39세이하에서는 싱거운 음식 (4.2%)을, 40대에서는 매운음식 (4.9%)을, 50대에서는 싱거운 음식(9.9%), 60대에서는 전

음식 (17.6%)을, 70세이상도 잔음식(8.5%)을 좋아 하였다. 결혼관계는 기혼과 기타 독신자에서는 27.7%와 10.6%로 잔음식을 좋아하고, 미혼에서는 싱겁고 매운음식을 각각 2.8%로 좋아 하였다 (P=0.060). 교육정도에서 전문대이상은 매운음식 (4.3%)이, 고졸과 중졸은 잔음식 (각각 5.7%, 7.8%)이 높게 나왔다. 재산상태별 상관관계는 5천만원이하의 잔음식 (11.0%)이 높았고, 2억원-3억원은 매운음식 (3.2%)을, 3억원이상은 싱거운 음식 (6.3%)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IV. 고 찰

일반적으로 뇌졸중은 虛血性 病巢를 일으키는 閉鎖性

뇌혈관질환으로 혈전증과 색전증이 있고, 頭蓋腔 내출혈을 동반하는 出血性 뇌혈관질환으로 뇌내출혈과 蜘蛛膜下出血으로 나눌 수 있는데(崔吉洙, 1990; 林光世외, 1989; 이상복외, 1990), 한방에서는 주로 火와 痰飲이 주요 원인이 된다고 보며, 대체로 火란 정신신경계의 병리적 현상을 의미하고, 痰飲이란 津液이 변질된 비생리적인 물질을 말한다(金永錫, 1980; 李容旭, 1989). 그리고 또한 五志(喜·怒·憂·悲·恐)의 過極으로 인하여 火熱이 炎上하므로 발생하는 것이라 하였다.(金定濟, 1974) 그런데 뇌졸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뇌세포는 손상을 받으면 재생이 안되며, 그로인해 인지능력, 지각, 시력, 通話, 嚥下, 방광과 通便의 결함등이 나타나고, 운동 손상으로 인한 弱症, 불균형, 운동실행, 관절운동의 제한, 訥語症등 많은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것

표 11. 식습관(좋아하는 음식 맛)

구 분	싱거운 음식 33.8(48)	잔 음식 38.0(54)	매운 음식 24.7(35)	단 음식 3.5(5)	계 100.0(142)
성별					
남	9.2(13)	18.3(26)	14.1(20)	0.7(1)	42.3(60)
여	24.7(35)	19.7(28)	10.6(15)	2.8(4)	57.7(82)
	$\chi^2 = 9.491$ $df = 3$ $P < 0.05$				
나이					
39세 이하	4.2(6)	1.4(2)	2.1(3)	-	7.8(11)
40-49세	2.1(3)	4.2(6)	4.9(7)	0.7(1)	12.0(17)
50-59세	9.9(14)	6.3(9)	7.0(10)	2.1(3)	25.4(36)
60-69세	10.6(15)	17.6(25)	7.8(11)	0.7(1)	36.6(52)
70세 이상	7.0(10)	8.5(12)	2.8(4)	-	18.3(26)
	$\chi^2 = 15.682$ $df = 12$ $sig = 0.206$				
결혼					
기혼	27.0(38)	27.7(39)	18.4(26)	3.6(5)	76.6(108)
미혼	2.8(4)	-	2.8(4)	-	5.7(8)
기타	4.3(6)	10.6(15)	2.8(4)	-	17.7(25)
	$\chi^2 = 12.087$ $df = 6$ $sig = 0.060$ $FM = 1$				
교육정도					
전문대 이상	2.8(4)	2.8(4)	4.3(6)	0.7(1)	10.6(15)
고졸	5.0(7)	5.7(8)	5.0(7)	0.7(1)	16.3(23)
중졸	6.4(9)	7.8(11)	7.1(10)	-	21.3(30)
초등졸	17.0(24)	17.0(24)	5.7(8)	2.1(3)	41.8(59)
무학	2.1(3)	5.0(7)	2.8(4)	-	9.9(14)
	$\chi^2 = 11.182$ $df = 12$ $sig = 0.513$ $FM = 1$				
재산상태 (동산+부동산)					
5천만원 이하	8.7(11)	11.0(14)	5.5(7)	-	25.2(32)
5천만원-1억원	7.9(10)	15.8(20)	8.7(11)	2.4(3)	34.7(44)
1억원-2억원	6.3(8)	8.7(11)	6.3(8)	0.8(1)	22.1(28)
2억원-3억원	2.4(3)	0.8(1)	3.2(4)	-	6.3(8)
3억원 이상	6.3(8)	3.2(4)	1.6(2)	0.8(1)	11.8(15)
	$\chi^2 = 12.103$ $df = 12$ $sig = 0.437$ $FM = 15$				

註: FM=Frequency Missing

이다(김종만, 1996; 오정희, 1986; 이호근외, 1996; Signe, 1982). 그러므로 뇌졸중의 예방이아말로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대처법이랄 수 있다.

뇌졸중이 고령자에서 발생빈도가 높으며 성인의 가장 주요한 死因중 하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실인데(Richard, 1996; Lawrence, 1982; Kenneth, 1987; Tenth, 1973; 金斗熙외, 1992; 韓相泰외, 1996), 뇌졸중에 관한 국내외의 여러가지 역학적 및 임상적 조사연구에 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보고가 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보면 男子: 女子의 발생빈도는 42.3% : 57.7%로 남녀의 비가 1 : 1.36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박정미외(1987), 金仁植외(1975), 權浚哲(1996) 등과는 비슷하였으나, 권희규외(1984), 김동준외(1968), 이영(1968), 朴勝日외(1977), 김신태외(1982), 金大河(1971), 양인명외(1982), 徐永漢외(1975)등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年齡에서는 60代에서 36.8%로 1위, 50代의 25.2%는 2위, 70代이상의 19.6% 순이었는데, 이는 김병하(1995)의 60代(34.7%), 50代(33.6%), 70代이상(16.2%)과는 거의 비슷하였고, 김동준외(1968), 권희규외(1984), 이정근(1997), 박정미외(1984), 양인명외(1982)등의 50代, 60代, 40代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權浚哲(1996)의 70代이상, 60代, 50代와도 차이가 있었다. 결혼관계는 기혼이 74.7%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 기타 독신자군에서는 총 32명중 배우자 사별이 27명이나 되었고, 교육정도에서는 초등학교졸업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 대상자들의 연령들이 높은 편이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재산상태에서는 5천만원-1억원에서 33.3%로 타군보다 높게 나왔다.

조사대상자의 狀態別 분석에서 뇌졸중의 발병 시각에 대해 알아보면, 6-12시가 37.4%로 제일 높았고, 다음이 12-18시 26.4%, 0-6시 20.9%, 18-24시 15.3%의 순이었다. 일반적 특성과의 상관관계는 6-12시에서 보면 여자가, 60대에서, 기혼이, 초등졸, 5천만원-1억원에서 다른 군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病類에 따른 빈도는 뇌경색이 47.7%(혈전중, 색전중 포함)로 제일 높게 나왔고, 다음이 뇌출혈로 38.2%, 지주막하출혈이 5.1%, 뇌종양 0.6%였으며 기타가 8.3%였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뇌졸중 발생의 연대별 변화를 알아보면(대한의무관리자협회, 1997) 뇌출혈은 60년대에는 46.1%, 70년대에는 39.1%, 80년대 중반에는 33.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뇌경색은 60년대에 33.9%, 70년대에 34.

1%, 80년대에 32.6%로 나타났고, 지주막하출혈은 60년대에 14.9%, 70년대에 16.7%, 80년대에 15.9%를 나타냈는데, 뇌출혈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고 뇌경색과 지주막하출혈은 거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학자들의 보고를 살펴보면, (편의상 혈전중과 색전중을 합쳐 뇌경색으로 통일함) 뇌경색, 뇌출혈, 지주막하출혈의 비율이 순서대로 金仁植외(1975)의 43.7%, 33.3%, 23.2%, 김동준외(1968)의 42.6%, 32.6%, 15.4%, 朴勝日외(1977)의 48.8%, 39.4%, 8.8%, 閔榮日외(1975)의 47.8%, 29.8%, 25.5%와는 거의 비슷하게 분포하였으나 지주막하출혈에서 차이가 있었고, 이정근(1997)의 58.9%, 30.2%, 33.0%와도 유사하였다. 그러나 이영(1968)의 37.3%, 47.2%, 15.5%, 박정미외(1987)의 32.7%, 34.5%, 22.6%, 徐永漢외(1975)의 36.3%, 44.5%, 19.3%와는 차이를 나타냈다.

남여간 비율은 뇌출혈이 남17.8%와 여 20.4%로, 뇌경색은 남 22.2%와 여 25.5%로 비슷하였고, 연령별 특성은 뇌출혈과 뇌경색 모두 60代에서 14.0%와 18.5%로 다른 연령층 보다 높게 나왔다. 뇌경색은 기혼자에서, 초등학교졸에서, 5천만원-1억원에서 다른군 보다 높았다. 다음으로 선행질환을 보면, 있다가 49.4% 없다가 50.6%로 비슷하게 나왔다.

성별로 보면, 있다에서는 여자가 31.2%로 남자의 18.1%보다 높았으며, 없다는 남여가 거의 같았다. 그리고 선행질환이 있는 조사대상자중에서 고혈압이 48.6%로 제일 많았고, 당뇨병 22.9%, 심장질환 17.1%, 기타 11.4%의 순이었다. 이는 김한수(1990)의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이 각각 51.6%, 9.5%, 6.0%와 權浚哲(1996)의 50.5%, 10.0%, 2.9%, 徐永漢외(1975)의 48.7%, 2.6%, 6.1%와는 대략 비슷하였고, 朴勝日외(1977)의 79.0%, 3.4%, 10.9%나 金大河(1971)의 74.8%, 10.0%, 5.0%는 고혈압이 다른 층보다 월등히 높았다. 하지만 김병하(1995)의 22.4%, 18.8%, 18.1%와 이정근(1997)의 37.3%, 12.8%, 10.5%와 같이 고혈압의 수치가 낮은 경우도 있었다.

다른 특성들과의 관계를 보면,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이 모두 여자가, 60代에서, 기혼이, 초등학교졸업에서, 5천만원-1억원에서 다른 층보다 높게 나왔다. 뇌졸중을 일으킨 가족력에 대해 알아보면 조사 대상자 155명중, 가족중에 없었다가 65.8%(102명)로 제일 많았으며, 어머니가 12.9%, 아버지가 9.7%, 형제자매가 7.7%, 그리고 조부와 조모가 각각 1.9%로 나타났다. 남자는 아버지와 형제자매가, 여자는 어머니가 더욱 높게 나왔다.

체중에 관해서 알아보면 51-60kg이 37.4%로 1위, 61-70kg이 30.7%로 2위, 50kg이하가 17.8%로 3위였고, 71-80kg이 9.8%, 80kg 이상이 4.3%였다. 남자는 61-70kg이, 여자는 51-60kg이 제일 높았고($p=0.000$), 51-60kg에서 보면 60대에서, 기혼자가, 초등졸에서 타군보다 높았다. ($p<0.01$)

뇌졸중 환자들의 운동 습성에 대해 알아보면, 하지 않는다가 46.6%나 되었고, 한달에 몇번한다가 28.0%, 1주일에 3회이하가 13.7%, 1주일에 4회이상 11.8%였는데, 대다수 운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 않는다는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고($p<0.05$), 60대에서, 기혼자가, 초등졸($p<0.01$)에서, 5천만원-1억원에서 다른 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김병하(1995)의 하지 않는다 41.2%, 여자에서, 60대와 70대에서, 유배우자에서, 하류층에서, 학력이 낮을수록과 거의 일치 하였다.

음주에 관한 분석을 알아보면, 안한다가 65.6%로 1위였고, 2-3일에 한번한다가 11.0%로 2위, 한달에 1-2회 한다가 9.8%로 3위로 나타났는데, 다른 보고들과는 측정방법에 차이는 있었지만, 權浚哲(1996)의 안한다(72.4%), 1일 소주1홉이하(15.2%), 소주1-2홉(6.2%)나 김병하(1995)의 소주반잔정도(18.0%), 한잔(15.9%), 2잔이상(13.0%)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일반적 특성들과의 관계에서는, 술을 안한다는 여자가(52.2%), 60대(22.1%), 기혼(48.2%), 초등학교졸업(25.2%), 5천만원-1억원(20.8%)에서 높게 나왔고, 매일한다(소주 2홉1병기준) 남자가, 60대에서, 기혼이, 초등학교졸업, 5천만원-1억원에서 다른군보다 높았다.

흡연에 관한 분석에 대하여 알아보면, 안한다가 63.0%로 제일 높았고, 하루에 0.5-1갑이 16.0%, 1-2갑이 15.4%등으로 나타났다. 權浚哲(1996)의 안피운다 67.1%, 하루에 0.5-1갑 14.2%, 0.5갑이하 11.4%와는 대략 비슷하였고, 김병하(1995)의 비흡연자 57.0% 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특성별로 보면 안한다에서는 여자가, 60대에서, 기혼이, 5천만원-1억원에서 타군보다 높게 나왔다.

식습관(좋아하는 음식 맛)에 대하여 알아보면 짠 음식이 38.0%, 싱거운 음식이 33.8%, 매운 음식이 24.7%, 단 음식이 3.5%로 나타났다. 싱거운 음식은 여자가(24.7%) 남자(9.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고($p<0.05$), 매운 음식은 남자가, 60대에서, 기혼자가, 중졸에서, 5천만원-1억원에서 타군보다 높았다. 다른 연구자와 비교를 해 보면, 權浚哲(1996)의 짠맛 39.5%, 매운맛 32.9%과는 거의 같았는데, 보통 한국인의 1일 소금 섭취량이 20g이상이므로 하루 권장량인 7-8g을(이주

은, 1994) 섭취하도록 하여야겠다.

본 연구는 일부 제한된 뇌혈관 질환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관계로 환자군이 일반화 될 수가 없었으며, 설문지의 몇몇 함에서는 무응답 내지 미기재가 있어서 제대로 분석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었다.

V. 요약 및 결론

1998년 2월부터 1998년 3월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불교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있는 뇌혈관 질환자 163명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다.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163예중 남여의 비는 1: 1.36이었고, 연령층은 60대(36.8%), 50대(25.2%), 70세이상(19.6%)의 순으로 나타났다.
2. 결혼관계는 기혼이 74.7%, 학력은 초등학교졸업이 41.5%, 재산상태는 5천만원-1억원이 33.3%로 가장 높았다.
3. 발병 시간은 163예중 6-12시가 37.4%, 12-18시가 26.4%, 0-6시가 20.9%, 18-24시가 15.3%였다.
3. 病類별로는 157예에서 뇌경색(혈전중, 색전중포함)이 47.7%, 뇌출혈이 38.2%, 지주막하출혈이 5.1%, 기타가 8.9%였다.
4. 선행질환은 160예중 있다가 49.4%, 없다가 50.6%였고, 선행질환이 있는 경우(70예)에서 고혈압이 48.6%, 당뇨병이 22.9%, 심장질환이 17.1%, 기타가 11.4% 순이었다.
5. 가족력은 155예중 없다가 65.8%, 어머니가 12.9%, 아버지가 9.7%, 형제자매는 7.7%, 조모와 조부가 각각 1.9%였다.
6. 체중에 있어서는 163예중 51-60kg이 37.4%, 61-70kg이 30.7%, 50kg이하가 17.8%, 71-80kg가 9.8%, 80kg 이상이 4.3%의 순이었다.
7. 운동에서는 161예중 하지 않는다가 46.6%, 한달에 몇번이 28.0%, 1주일에 3회이상 13.7%, 1주일에 4회 이상 11.8%였다.
8. 음주에 관해서는 163예중 소주2홉1병 기준으로 안한다가 65.6%, 2-3일에 한번 한다가 11.0%, 한달에 1-2회는 9.8%, 매일한다가 8.6%, 1주일에 한번은 4.9%의 순이었다.
9. 흡연에 있어서는 162예중 안한다가 63.0%, 하루에 0.5-1갑이 16.0%, 1-2갑이 15.4%, 반갑이하가 4.9%, 2갑

이상이 0.6%의 순으로 나타났다.

10. 식습관(좋아하는 음식맛)은 142명중 전 음식이 38.0%, 싱거운 음식이 33.8%, 매운 음식이 24.7%, 단 음식이 3.5%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미루어 CVA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육식 위주의 식사를 피하고 저염식을 하며, 고혈압의 적극적인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비만, 운동, 흡연 등의 문제점들도 부각시켜, 의료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CVA의 예방과 치료 및 홍보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사망원인 통계연보, 48-185, 1990.
2. 具本泓 의 : 東醫 心系 內科學, 서울, 書苑堂, 229-247, 1987.
3. 權浚哲 : 中風 發生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 慶山大 保健大學院 碩士論文, 1996.
4. 권희규, 오정희 : 뇌졸중의 임상적 연구, 서울, 대한재활의학회지, 8 : 2, 1984.
5. 金大河 : 腦卒中症에 對한 臨床的 考察, 서울, 대한내과학회잡지, 14 : 10, 1971.
6. 김동준 의 : 뇌졸중 환자 740례에 대한 임상관찰, 서울, 대한내과학회잡지, 11 : 10, 1968.
7. 金斗熙, 李元植 : 公衆保健學概論, 서울, 學文社, 405-423, 1992.
8. 김병하 : 한방병원 내원 뇌졸중 환자의 사회학적 조사, 경산대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95.
9. 김신태 의 : 뇌졸중 환자에 대한 임상적 고찰, 서울, 대한신경외과학회지, 11 : 2, 1982.
10. 金永錫 : 中風의 病因, 病理에 關한 文獻的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38-39, 1980.
11. 金仁植 의 : 腦卒中의 臨床的 觀察, 서울, 대한내과학회잡지, 18 : 7, 1975.
12. 金定濟 : 東洋醫學 診療要鑑(上),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447-462, 1974.
13. 김종만 : 신경해부생리학, 서울, 정담, 337-339, 1996.
14. 김한수 : 腦卒中 患者 發生에 影響을 미치는 因子, 慶山大 保健大學院 碩士論文, 1990.
15. 대한의무행정관리자협회, 제4차 의무행정종합학술대회 연세집, 194-200, 1997.
16. 閔榮日 의 : 腦卒中에 關한 研究, 서울, 대한내과학회잡지, 18 : 1, 1975.
17. 朴勝日 의 : 腦卒中의 臨床的 觀察, 서울, 대한내과학회잡지, 20 : 4, 1977.
18. 박정미, 박창일, 조정자, 신정순 : 뇌졸중의 재활치료에 대한 고찰, 서울, 대한재활의학회지, 11 : 2, 1987.
19. 徐永濩 의 : 腦卒中의 臨床的 觀察, 서울, 대한내과학회잡지, 18 : 7, 1975.
20. 양인명 의 : 뇌졸중의 임상적 고찰, 서울, 대한내과학회잡지, 25 : 2, 1982.
21. 양재모, 유승훈 : 국민의료총론, 서울, 수문사, 484-488, 1984.
22. 吳貞姬 : 再活醫學, 서울, 大學書林, 161-167, 1986.
23. 李尙觀 의 : 家庭醫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84-288, 1990.
24. 이 영 : 腦卒中症에 對한 臨床的 觀察, 서울, 대한내과학회잡지, 11 : 9, 1968.
25. 李容旭 : 腦卒中에 있어서 體性感覺 誘發電位의 臨床的 應用, 慶熙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 1989.
26. 이재학, 함용운, 장수경 : 測定 및 評價, 서울, 大學書林, 409-440, 1988.
27. 이정근 : 뇌졸중 환자의 양, 한방 진료 선호성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한의무행정관리자협회 제4차 연세집, 1997.
28. 이주은 : 동맥경화의 식이요법, 醫學情報, 서울, 醫業新聞社, 12 : 56, 1994.
29. 이호근, 신현대 : 腦卒中의 再活療法, 서울, 韓方再活醫學會誌, 6 : 1, 1996.
30. 林光世 의 : 神經外科學, 서울, 大韓神經外科學會, 170-174, 1989.
31. 崔吉洙 : 最新外科學, 서울, 一潮閣, 1225-1230, 1990.
32. 韓相泰, 南銀祐 : 國際保健學, 서울, 고려의학, p.15, 1996.
33. Kenneth W.Lindsay, Ivn Bone, Robin Callander : Neurology and Neurosurgery Illustrated, London and New York, Churchill Livingstone, 226-231, 1987.
34. Lawrence W.Green, C.L.Anderson : Community Health, London, The C.V.Mosby Company, 145-148, 1982.
35. Richard Wilkinson : Unhealthy Societies, London, Routledge, 53-71, 1996.
36. Signe Brunnstrom, M.A. : Movement Therapy in Hemiplegia, USA, Harper and Row Publishers, Inc, p.7, 1982.
37. Tenth Edition :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USA, Prentice-Hall, Inc, p.497, 1973.